벙커 김민좌

벙커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처음으로 저도 벙커를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바로 최근 이슈를 말하기보다는 홍콩과 대만이 어째서 미중갈등에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결정 및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알고가야만 하는 것같다는 생각에 저는 이번 시간에는 홍콩과 대만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먼저 홍콩입니다.

홍콩을 저는 2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일한 일국양제 도시 세계은행의 경제중심지

홍콩은 과거 영국이 청에게서 가져온 도시였으나 덩샤오핑 때 다시 중국의품으로 돌아온 도시입니다. 약 100년간 영국이라는 서방국가의 영향을 받아 시장주의가 경제를 일으킨 자본주의 체제의 끝판 왕으로서 존재했던 도시이기에 중국은 일국양제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본 대부분을 대신 전달하고 받는 중개국의 역할을 해왔고 중국자체의 자본력이 커진 지금도 홍콩의 경제적 자유나 법치 수준이 중국에 비해 훨씬 높은 등의 이유로 많은 중국 행 해외 자본의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홍콩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면서 우산 혁명이라던지 홍콩범죄인 인도법 반대시위라든지 홍콩의 민주화를 찾기 위한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꾸준히 있었으나 2020년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 통과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와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 동력은 사라졌고 홍콩 민주파 의원들은 전원 사퇴했고 결국 2021년 들어 선거 입후보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친중이 아니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진정한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라졌다보면 됩니다.

중화민국 또는 대만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타이완 섬과 푸젠성의 일부인 진마 지구를 통치하는 공화국입니다.

현존하는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1912년 건국을 선포한 이후 100년이 넘는 장수 공화국이 되었다. 중화민국의 헌법상의 영토는 중국 대륙을 포함하나,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게 패배하여 국부천대한 이후 실효 지배 영토는 타이완 섬과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 36,197㎢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이 반란으로 세운 불법 단체로 간주하여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중화민국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이후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타이완을 자국의 일개 지방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20세기 후반 냉전이 해소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적 입지가 상향됨에 따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정통적 중국으로 인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제1세계 국가들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특별한 외교적 대우를 받으며, 타이완 관계법 및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과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다른 미승인국가들과는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대만에 대한 제 키워드는 과연 국가인가? 그리고 미국의 중국견제를 위한 나라입니다.

물론 대만입장에서 이 두가지의 키워드는 매우 기분나쁠 수도 있는 단어이겠지만 대만의 현재 상황이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적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대만은 국공내전 이후 작은 섬으로 쫒겨났지만 un상임이사국으로써 중국을 대표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말했듯이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만은 자진으로 un을 탈퇴하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의견에 따라 대만과의 국교를 끊으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로 칭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상황은 저희에게 국제사회에서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 혹은 같이 뜻을 함께했다 라는 당위성과 정의보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만이 가진 경제력, 영향력을 봤을 때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취급을 받는 아주 특이한 사례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중국견제 역할을 맡은 대만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중국이 급 부상한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국교를 끊으면서 대만과 미국 사이는 나빴지만 최근 중국의 세계의 패권을 위협하는 자리까지 성장하면서 트럼프정권때부터는 대만을 확실히 국가로써 취급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패권신장을 막기위한 울타리로써 미국이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군인이 대만에 파병 되어있고 대만의 현재 분위기가 반중감정이 큰 상태이기에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더 끈끈해질 것이라 추측됩니다.

결국 홍콩과 대만은 중국과 깊은 갈등관계 혹은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로써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 보자면

먼저 홍콩은 흔히들 신냉전으로 비유하는 미중관계의 중재지도 홍콩이다. 우스갯소리 반 진담 반으로 미중 전쟁 후 뒷처리 및 평화협정은 홍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들 한다. 미국의 자본이나 인력 기타 이권들이 홍콩에 많이 몰려있기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홍콩 섬 센트럴에는 Bank of America와 Wells Fargo 등 미국 은행의 지점이 많이 있고 미국계 투자회사들이나 컨설팅, 통번역 회사들도 많으며 미국의 변호사들도 많이들 가 있고 홍콩인 중 미국 각 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홍콩은 미중 관계의 중요 경제지로써 중국이 제재하는 방향이나 영향력이 미중관계에도 깊은영향을 미칠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대만은 중국과의 직접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국가로 중국이 팽창하면서 중국 팽창전략을 막기위한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중국의 홍콩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대만국민들까지 불안한 상태이기에 양안관계에서 골리앗의 위치인 대만의 방향성은 미국과 계속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나 미국의 영향력의 방향은 미중관계에도 큰영향을 미칠수 있다 볼수있습니다.

최근 이슈보고

대만: 위에 설명하였듯 지금 대만과 미국은 중국의 확대에 맞추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존 헤네시 닐랜드 주팔라우 미국 대사가 대만을 국교단절이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4월14일 바이든 행정부가 방문단까지 중국에 파견하면서 중국견제를 위해 대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은 바이든행정부에서도 반복될것이라 예상할수 있겠습니다.